작지만 꿈이 있는 '마이웨이' 골목 개통

특색있는 거리문화 만들려는 주민들 의욕 넘쳐

사운드트랙 '마이웨이'를 회기동에서 듣는다면 어떨까?

영화를 상상하지는 말라.

회기동 유지들의 모임인 '동심회'가 새로 개통된 골목에 마이웨이란 이름을 붙이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거리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학교 정문 좌측 니코 락까페 와 시계탑이 시원하게 새로 뚤린 골목이 하나 보이는데 이 골목이 바로 마이웨이 골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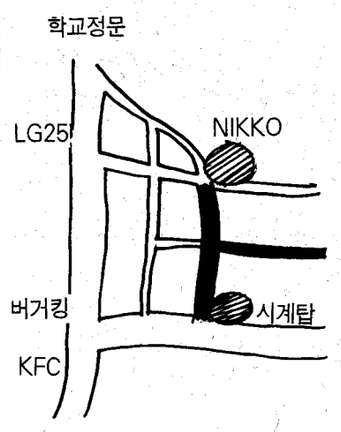
이번 문화거리 '마이웨이'는 소방도로의 미개설 과 주민교통,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회기동 도로개설공사의 일환으로 폭 6미터, 길이 약 40미터에 걸쳐 3천6백만원을 들여 개통되는 문화거리이다.

'마이웨이'란 회기동 동심회 주민들이 직접 지어서 붙인 이름이다. 약 40명 정도로 구성된 회기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이 지역을 홍대의 피카소 거리나 신당동 떡볶이 거리처럼 나름대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 하에 이번 계획을 추진중이다. 박정범 동심회 회장은 "앞으로 골목 곳곳에 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부근 상가에서 서비스 개선 등의 협조를 얻어 타 지역에서도 이곳을 찾고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이 골목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학생들도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야 한다. 아무 곳에나 침을 뱉고 길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은 사라져야겠다.

비록 지금은 40미터정도의 짧은 거리지만,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좀더 넓고 특색있는 문화공간 창조가 결코 꿈만은 아닐 것이다. 〈최용섭 기자〉

▲홍대의 피카소 거리나 신당동 떡볶이 거리처럼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문화공간 창조가 예상된다.



수원 화홍 · 용인 용구 문화제 개최

97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시와 용인시가 '제34회 화홍문화제', '제12회 용구문화제'를 개최하여 가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수원시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는 '화홍문화제'는 8일 '능행차연시'를 시작으로 장안공원에서 '수원갈비축제'(8-10일), 팔달문에서 '시장거리축제'(9-10일)가 열리며 시내 곳곳에서 문화예술행사, 민속경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들도 계속된다.

'화홍문화제'는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확정을 자축하고,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의 효를 이어받기 위해 매년 수원시민의 날에 개최된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발굴, 전승시키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용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문화제는 용인문예회관에서 '국악 경연대회(6일 오전 10시)', '한복맵시대회 및 용인아가씨 선발대회(9일 오후 6시 30분)', 민속촌에서 '가을음악회(11일 오후 1시)' 등이 열리며 용인시내 곳곳에서 문화행사와 각종 전시회 및 공모전이 있을 예정이다.

의료원,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경희의료원내 기독봉사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 무료 진료를 실시할 당시 매주 10여명 남짓한 인원이 진료를 받았으나 차츰 이용자가 늘어나 현재는 매주 평균 20여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진료 범위는 투약 및 처치로 1차 진료에 한하며, 2차진료(수술 및 장기 치료)는 법적, 재정적 문제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9월 27일 현재 3백 3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출신국가별로는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1백 3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파키스탄 노동자가 4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무료 진료 대상 지역으로는 동대문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등 인근 지역에 한하고 있으나, 향후 서울 전역 및 수도권으로 진료 구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봉사회는 1980년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해 왔으며,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YMCA와 연계하여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있다. YMCA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은 723-4457 번이다.

동대문구 '지킴이집' 운영

동대문구에서는 폭력없는 안전지역조성 및 학교폭력과 유해업소의 불법영업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 9월 2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관내 중·고교 및 대학가 인근주변 경희대 입구와 회기로의 양방향 및 외대입구에서 외대역까지를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선언하였다.

더불어 지난 9월 24일 구청 6층 상황실에서 이지역 업주대표자 40명을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해 위촉식과 함께 이들 업소를 '청소년 지킴이 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폭력피해 및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신변보호, 폭력현장 목격시 관계기관에 신고, 유해업소 불법 영업행위 고발, 지역 청소년의 선도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대문 보건소 정신질환자 무료진료

동대문구 보건소(928-4000, 920-4425)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체계를 확립하여 구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오는 12월 18일까지 정신질환자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정신과 무료진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수사정으로 환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진료할 계획이다.

진료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1차 접수하여 진료일정을 예약한 후 지정된 날자에 진료를 실시하며, 진료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무료이다.

열린시민학교 수강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시민학교'가 오는 7일부터 열린다.

대학생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문화연구회 등 6개 동아리 연합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풍물, 노동법 등 4개 교실로 나뉘어 개최된다. 〈표참조〉

한편 접수는 개강전까지 용인청년일꾼들 사무실로 하면된다.

과 목	일 시	과 목	과목	수강료
기타교실	10월7일~11월 2일	용인장로교회 교육관	50	2만원
풍 물	매주 화·목요일	용인청년일꾼 신갈지부	50	3만원
노 동 법	10월10일~11월6일	신갈초등학교후문 송우빌딩 지하	100	2만5천원
등 산	매주 금요일	신갈소재 다목적복지회관	50	1만원

26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희의료원 개원 26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일 의료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최영길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조정원총장의 축사와 조영식학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직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공로상과 봉사상 등이 수여되었다.

상패 수여자 수는 10년근속자 84명, 20년 근속자 40명, 친절봉사상 13명, 모범 공로상 13명, 고황의학상 20명이다.

의사회 테니스 대회 우승

경희의료원은 지난 9월21일 목동 테니스장에서 벌어진 '제28회 서울시 의사회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대회는 서울지역 의사 4백여명으로 구성된 총 60여개 팀이 참가했다. 경희의료원팀은 유세영(흉부외과), 조용호(학생처장), 고영관(외과), 김명관(흉부외과), 송종일(연구원), 김성수(정형외과), 이명욱(외과)씨로 구성되었다.

의료원 칼럼

신생아 관리 개선 필요

한 나라의 국민 건강과 보건의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척도 중에서 신생아 사망율(생후 1달 이내 사망율)이나 영아 사망율(생후 1년 이내 사망율)은 흔히 이용되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미숙아나 저출생 태아는 전체 출생 중의 약 10%로 현재 한국의 일년간 출생수 65만명중 약 5-6만명이 이 범위에 속하고 이중 약 1/3이 초미숙아이다.

이러한 초미숙아들은 예를 들어, 호흡곤란증후군 같은 이들에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여러 특수 질환이 있고,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 특수 약제가 필요하며—미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한 산모의 자궁과 같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기, 인공호흡기, 각종 감시 장치 등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숙련된 전문인력의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 즉, 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21세기를 준비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높은 수준의 의료를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비하여 이를 준비하고, 우리 의사들은 이의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함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모든 것이 만족치 못한 시점이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의료 정책면에서 이점에 대해 공감하여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의료수가가 제공되고, 실제 임상을 담당하는 병원에서 이러한 시설의 투자와 인력 확보에 공감하여 충분한 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후, 서로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제도에서 실행까지의 완벽한 팀웍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백혈병이다' '선천성 심장병이다' 해서 소위 주목 받는 만성병으로의 사회 언론적인 관심의 한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숙아 관리의 개선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숙아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사회인식의 긍정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가 없어서,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한 다거나 , 치료에 사용해야 하는 약제가 반드시 생명의 구명을 위해서 필요한 특수 약제인데, 이것이 고가이어서 사용치 못한다고 할 경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다. 또한, 이의 개선은 향후 국민보건 지표 개선과 발전의 터전이 될 것이다. 실제로 구미 선진국에서는 미숙아나 저출생아인 경우, 현재 5~6백 그람 까지의 초미숙아에서도 2/3 이상에서 생존하는 수준에 와 있고, 우리도 이 수준에의 도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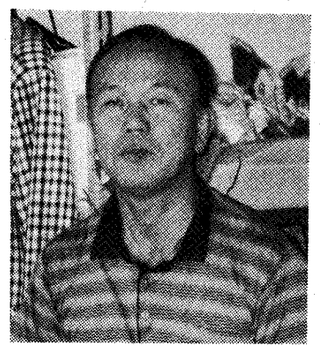
국민 복지 향상이라는 큰 목적의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생중 가장 위험한 시기인 신생아 및 영아기의 보건 향상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관심이 증대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한 주먹 크기의 미숙아도 엄연하고 외경스러운 생명체로 이는 곧 너와 나, 우리 전부의 후세이기 때문이다.

배 종 우
〈소아과학 교수〉

우리마을 지킴이

수원캠퍼스 교문 매표소 직원 김만준씨

매표소 구멍을 통해 본 학생들



3평 남짓의 공간, 과자와 음료수 더미 사이로 한켠에 놓인 작은 책상, 그위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하얗고 붉은 종이들.

3년째 작은 창구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가 있다. 그는 그 창구를 통해 스쳐지나가는 손길을 대하며 하루를 보낸다. 바로 그 작은 창구의 주인공인 직행버스 매표소 김만의(58세)씨를 만나 보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이일을 시작했을 때는 차내에서 표를 팔았는데 학교측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곳에서 표를 팔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작은 공간이나마 자신의 공간이 생겨서 일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이곳은 마치 창살없는 감옥과도 같아요.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서 생활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한지…" 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금 자신의 나이로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 하는 김씨는 마냥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려 노력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의 하루는 아침 7시 매표소 청소와 함께 시작된다. "가끔씩 아침에 하차하는 학생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있는데 같은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같은 방향이면 불편한 학생들을 도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더 보기좋지 않겠어요" 라며 평소 자신이 작은 창구를 통해 보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고. 또한 그는 "돈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라며 학생들에게 돈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깨끗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되는 일은 없지만 틈틈이 즐거울 때가 있다고 한다. 매표 시 잔돈을 더 주었을 때 학생들이 정직하게 되돌려 주거나 차내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었을 때 학생들의 고맙다는 한마디 인사가 그에게는 단조로운 일상에서의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지은정 기자〉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도전한다는 건 꿈이 있다는 거다.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다. 어릴적 축구시합, 팽팽한 긴장 속에 느꼈던 짜릿한 승부의 충동.
거기엔 역전의 기대와 그 속에 발휘될 자신의 탁월한 활약에 대한 꿈이 있다. 인생의 승부도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정해지지는 않는 법.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최고에의 도전이야말로 꿈의 의미를 아는 젊음의 선택이다.

선경은 에너지 • 화학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선경그룹 주요회사 SK는 유공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에너지 • 화학 群 SK/선경인더스트리/SKC/SK에너지판매/SK가스/SK옥시케미칼 ■정보통신 群 SK텔레콤/선경유통/SK컴퓨터통신/대한텔레콤/이리듐코리아 ■금융 群 선경증권 ■건설 群 선경건설 ■호텔 • 레저 群 쉐라톤워커힐 ■물류 群 SK해운 ■종합사업 群 (주)선경

※선경은 연중 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선경채용상담실 (02)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을지로2가 36-1 선경빌딩 1층
•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 co.kr

SUNKYONG 선경그룹